

# 불교 철학적 신념 '新경제이론' 으로

## 해의불교칼럼

'불교경제학(Buddhist Economics)'은 불교 철학적 신념에 따라 사람마다 선을 행함으로써 온건 타당한 인간사회를 발전시켜간다는 비교적 새로운 경제이론이다. 독일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후학을 지도한 에른스트 슈마허 박사가 미얀마의 초대수상인 우누의 경제자문역을 맡던 1955년에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1966년 동명의 논문을 발표한 이래 불교경제이론의 대명사로 굳혀진다. 뒤이어 1973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뒤 27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는 타임지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대 명저 중 하나로 선정된다.

이를 계기로, 불교국가인 부탄의 경우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서 불교적 정신유산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 등을 제안하게 된다. 이는 불교경제학의 요체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국민총생산지수(Gross National Product Index)로 대표되는 통상적인 경제지표와 병행하여 탈 경제적인 행복감(non-economic wellbeing)과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획기적인 실험이라 하겠다. 그 이외의 여러 지역에서도 불교적 이상을 일상경제생활과 조화시키고자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불교가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역사, 문화, 전통, 인습이 전혀 다른 현지의 불자들이 부딪치는 현실적인 애로점들이 적잖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복잡경계 환경에 직면한 불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적 지식과 연구, 또 구체



'불교경제학'은 불교철학적 신념에 따라 사람마다 선을 행해 온건 타당한 인간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경제이론이다. 사진은 주식 시장의 모습.

적 실천방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7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제1차 불교경제학 토론회'가 개최되고 전체 참가자 약 50명 가운데 95%에 달하는 서구 지역의 불자들이 동참한다. 헝가리의 코르비누스대학 기업윤리학과 및 부다페스트 불교대학 동서연구소가 공동 발의한 동 토론회의 기본취지는 불교경제학의 이론과 실천을 연구 개발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경제학의 이상과 실천 모델을 일반 대중들에게 확산·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 참석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제2차 토론회의 세부 일정이 최근 확정됐다. 태국의 우분라차타니 대학에서 12월 초에 개최되는 동 회합은 정치, 사회, 인종, 문화 등 상호대처적인 여러 측면들을 조율하고, 특히 상이한 종교 및 경제 배경을 조정하여 가능한 합일점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본주의 및 기독교문화가 기반인 사회에서의 불교' '자본주의화되어가는 불교문화 속의 불교의 위상' 등 이 의제에 오른다.

이를 위해 서구전문가들은 불교경제학 이론을 신규문화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 측에서는 당면한 현실상황으로부터 불교경제학의 이론체계를 도출하고자 숙의할 것이다. 그리고 동서 양측의 종교지도자들은 각 해당 신도들에게 종교와 경제가 양립 발전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2008년 12월 1일부터 나흘간 태국의 마히들 대학 살야 캠퍼스에서는 '소비주의 시대의 불교'를 주제로 별도의 회의가 개최되며, 11월과 12월에는 국민총행복지수 등의 분과별 토의도 열린다. 역사적으로 일부 종교 유파들의 선교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흔히 현지의 착취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대체

로 무자비한 무력행사와 강제점령 등 먼저 충분히 겁을 준 다음, 선교집단이 등장하여 학교, 병원, 구호기관의 설립 등 뒷걸진 영연애 사탕발림을 하며 개종(改宗)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식민제국주의의 황명인 현지 주구(走狗) 등을 양성하여 장기수탈구조를 체계화한다. 이것이 로마제국의 파스 로마나(Pax Romana)에서 개발되어 근대서구 열강의 식민지 아귀다툼 가운데 속성되고 대영제국의 공동번영(Commonwealth)으로 전승된 식민침탈의 전형이자, 종교와 경제가 아합해온 뺨한 공식이다. 불교경제학은 이와 다르다. 즉, 더 많이 가지려 다투는 폭력적 독점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서로 기꺼이 나누자는 비폭력적 공존 및 상생(相生)의 실천 개념이다.

출처 : Small is beautiful, Missionaries(answers.com) 등  
번역 : 성휴 스님

# "모든 종교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할리우드의 영상전범사 올리버 스톤 감독의 작품 중 불교적 색채가 가장 두드러진 '하늘과 땅'에 대한 인터뷰로 돌아가 보자. 기자가 말한다. "감독님은 이 영화의 끝 언저리에 이런 내레이션을 내놓고 있어요. '만일 스님의 말이 옳다면,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생겨나는 것이라면, 고통(suffering)은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이 되는 것이며... 또한 고통은 우리가 약해지려 할 때 강해지도록 이끌어주고, 두려움에 떨 때 용기를 주며,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 지혜를 주며, 또한 우리가 부질없이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대개 이런 얘긴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교의 중심교리일 뿐만 아니라, 가톨릭과 크리스천의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감독님이 가톨릭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까닭은 뭘까요?" "부정적이라니요? 그건 전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지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이슬람이든 가톨릭이든 그밖에 무슨 종교든 다 좋습니다. 또한 불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한 종교든 무엇이든 옳다고 여기지요.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편하게 대하는 겁니다." 기자가 되묻는다. "그렇군요. 아마도 제가 지닌 종교관의 한계인 것 같군요." "글쎄요. 그보다는 불교의 포용성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실 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제가 관객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기독교적 원죄의식의 강요, 그리고 고통의 강요였죠." 사실 원죄(Original Sin)란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이들에게 상당히 당혹스런 단어다. 출생 당사자가 누구와 미리 의논을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출생이 곧 원죄의 발단이라면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는 철저히원수란 건가? 그렇다면 산부인과 의 신생아실은 새 생명을 받쳐 갖는 회

## 영화 '하늘과 땅'서 불교적 메시지 전달

### "억지로 하지 말고 되어 지도록 놔둬야"

그런데 영화 속 주인공에 어떤 영혼이 깃들 수 없었을까? 베트남전쟁의 영웅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미국사회와 자본주의가 가하는 중압감 때문에 점차 폐쇄되고 경직되어 가는 거죠. 자아의 평가에 극도로 가혹한 그는 결국 인생의 패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기독교적 성장 환경에서 비롯한다고 봐요. 그러나 베트남전쟁의 희생자로서 자본주의사회의 미국으로 이민을 온 그녀는 달라요. 삶이란 고통을 받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다보면 길은 트이게 마련인 것. 그것이 그녀의 불교적 인생관인 거죠. '문득 타이거 우즈 도반의 엄마보살님이 아들에게 한 말이 떠오른다. '살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말고 삶이 그냥 되어지도록 놔둬라.' 또 다른 할리우드 영상전범사인 조지 루카스 도반은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해 불교철학의 총체적 법문을 장엄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펼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올리버 스톤 도반은 이처럼 우리 불자들이 날마다 부대끼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 곧 생활 속의 불교를 미려하고 섬세한 영상물을 통해 쉽게 풀어 보여준다.

성휴 스님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I don't lose my temper at all! 이젠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A father gave a bag of nails to his little boy with a bad temper saying, "Every time you lose your temper, hammer a nail in the fence!" The first day the boy had driven 37 nails into the fence. As he found it easier to hold his temper than to drive those nails into the fence, the number of daily nails gradually dwindled down. At last, he proudly told his father, "I don't lose my temper at all!" And the father said, "Good! From now on, pull out a nail every time that you can hold your temper!" After several days, the young boy could say, "Dad, all the nails

were pulled out." The father took his son by the hand and led him to the fence. "Excellent! But look at the holes in the fence. The fence will never be the same. When you say things in anger, they leave a scar just like this one." 아버지가 성질이 거친 아들에게 한 봉지의 못을 주며 말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걸 한 개씩 담장에 박도록 해라." 아들은 첫날 서른일곱 개의 못을 박았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는 못을 박는 게 더 쉽다는 걸 알았다. 마침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랑스

레 말했다. "이젠 전혀 화가 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했다. "잘했구나, 그럼 이제부터 화를 참을 수 있을 때마다 박힌 못을 한 개씩 뽑도록 해라." 며칠이 지나자 아기가 말했다. "아빠, 못이 다 뽑혔거든요."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담장으로 데리고 갔다. "참 잘했네. 그런데 여기 담장에 난 구멍들을 보라. 이젠 담장이 예전과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 네가 화를 내며 말할 때마다 이 구멍들처럼 상처를 남기는 거란다."  
번안: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 국내 최대 일만관 범종 탄생

## - 화천 세계 평화의 종(10,000관) -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 www.sungjonga.co.kr / E-MAIL: sungjonga@hotmail.com  
 ◆ 대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 8150관(현존 국내 최대)